



협회소식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11월 30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제 4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어, 무역업계 대표 및 근로자, 무역지원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참석하여 무역 5천억불을 달성한 우리 무역의 성과를 축하하였다.

이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수출증대, 무역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782명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 표창과 1,333개 업체에 대한 수출의 탑이 수여되었는데, 우리 업계에서는 한국, 금호타이어가 각각 “수출 10억불 탑”, 넥센타이어가 “수출 2억불 탑”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우리협회의 이성은 실장은 20년 이상 협회에 근무하면서 타이어산업의 발전과 무역 진흥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중국 고무공업협회 방문 교류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우리협회 이광복 전무와 이성은 실장은 중국고무협회(China Rub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CRIA)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에서는 CRIA의 Ju Hongzhen 회장 및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는 한편 상해에서 개최된 CRIA 주관 ‘제 5회 타이어, 튜브 기술 국제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CRIA와의 회의에서는 양국의 타이어 산업 현황과 양 협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양국 타이어 산업의 증진을 위해 양 협회의 친밀한 공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방문은 올 상반기 CRIA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우리협회의 서면 제안이 구체화 된 것으로, 이는 향후 타이어 산업의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과 중국 타이어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잠재력을 감안할 때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방문 중 우리협회 회원사의 중국공장(한국타이어유한공사, 금호타이어운태유한공사)을 방문하여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시아/오세아니아 타이어 국제 규정 조화 회의 참석

협회 기술·홍보팀 윤태균은 지난 11월 28일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제 2회 아시아/오세아니아 타이어 산업 회의에 참석하였다.

일본 자동차 타이어 협회(JATMA)가 주최한 이번 타이어 산업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타이어 규정을 ECE 규정으로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국의 타이어 규정현황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02년도에 타이어 부문 ECE 규정을 도입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41조 장치의 보안 기준 제9항(주행장치)에 타이어 기술기준의 규정으로 적용하고, 동법 제75조 2항의 장치형식지정기준(상호인준)에 ECE 규정 No. 30(승용차용 타이어), No. 54(상용차용 타이어), No. 75(이륜차용 타이어)를 채용하여 05년 1월부터 자동차 형식승인(신차 및 수입차)시 ECE 타이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SEMA쇼 참관

타이어 전시회로서는 권위 있는 SEMA 쇼가 지난 10월 31~11월 4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협회에서는 이광복 전무가 참관하였다.

이번 SEMA 전시회의 참가업체는 총 2,055개사였으며, 타이어 부문은 20여개 타이어 제조업체와 10개 도매업체 및 대리점이 참여하였는데,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는 타이어 및 튜브 메이커 6개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및 튜닝 중심으로 전시되어 타이어 부문 비중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타이어 출품전시품목도 타이어만의 전시보다는 자동차에 장착된 상태로써 주로 전시하여 자동차와 함께 타이어의 패션화를 지향하였다.